

신묘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다.

올해 뭘가 해야 할 일이 많을 것만 같다. 그동안 밀어두었던 숙제를 한꺼번에 해야 할 것 같고, 답답하고 불행했던 기억을 말끔히 씻고 새로운 희망과 미래로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곁에 왔다는 느낌도 든다. 아마도 그것은 누구든 새해 새날을 맞는 설렘일 것이다.

신묘년 새해엔 그 박찬 감동과 설렘이 우리 모두에게 북물처럼 왔으면 좋겠다.

따지고 보면 우리 주변의 현실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니다.

우선 국내의 정세가 그리 간단치 않다. 북핵6자 회담이 그렇고, 미·중·러·일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다시 한번 숨 고르며 새날 기대

지정학적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강원도 최북단 접경지역이며, 동서남북교통망의 변방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제한으로 지역사회 발전이 늦고, 농·어업 등 1차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구조상 일자리가 없어 인구감소가 계속되는 현실에서, 2008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 소식도 지금까지 감감하고 국제금융 대란과 세계경제 불황으로 시작된 지역경기

침체의 회생 또한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사건은 금강산유로관광의 재개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작은 희망조차 송두리째 앗아갔다. 그리고 연이은 구제역파동과 AI 발생으로 매서운 한파이상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숨을 고르면서 새날을 기대한다.

포구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비릿한 생선냄새로 넘쳐나고, 금강산관광버스가 도로를 질주하고 아름다운 경승지마다 탐방객들이 넘쳐나 지역주민 모두 태평성가를 부르며 신명나게 일하는 희망찬 모습을 보고 싶다.

새날 새아침에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할 새로운 지역신문의 탄생을 축하한다.

기실 대중매체는 불특정 다수에게 정

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의미하며, 책, 신문, 잡지, TV, 라디오, 인터넷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중매체는 우선 '광고'를 통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거나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여러 사실을 알림으로써 여론을 형성하고, 중요한 정치적 이슈를 이끌어내고,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누구나 보편적인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매체는 신속·정확하게 대량의 정보를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고, '문화'라는 개념을 대중적으로 보급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장점도 있지만 무분별한 광고 등으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폭력성, 선정성 등의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문화의 획일화 현상을 유발시킨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과연 우리 지역신문은 어떤 존재이어야 할까?

지역주민들에게 사건 또는 사실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하고 사건과 정보를 논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평가하며 그에 따른 여론형성과 갈등해소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사회조직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사회적 조정기능과 전통이나 규범 등의 전수는 물론, 공통적인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과 공감대 형성으로 공동체 의식과 동질감 유발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신선한 아침 공기 같은 신문

신선한 아침 공기와 같이 우리의 해맑은 정서와 감성을 담아내는 용기그릇이 되고, 그늘진 사회를 보듬어 더불어 사는 오두막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고, 민주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초록빛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론직필을 통해 우리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올곧은 우리 심성의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선국 칼럼위원 약력

- 고성태생
-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졸
- 강원공무원문학회 동인
- 한국문인협회 회원
- 고성문화포럼대표
- 고성군 죽왕면장
- 편저 : <고성지방의 옛날이야기> 등 다수

이선국 칼럼

시인, 죽왕면장



고성신문 창간에 즈음하여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 <1>

“그림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최금란 칼럼

교육학박사,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미술을 아름답게, 보기 좋게,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대한다.

하지만 미술치료에서는 보기 좋은, 잘 그린 그림을 원하는 미술의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표현하는 미술표현 행위에 그 의의가 있다고 본다.

즉,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미술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활동을 통해 각자 나름대로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승화되는 과정이 진정한 미술치료의 의미라 하겠다.

미술활동 통해 카타르시스 느끼는 과정

미술치료는 미술이라는 시각매체를 통해 스스로 억제, 상실, 왜곡된 부분을 발견하고 미술의 상징성과 전체성을 통해 통합 시킴으로써 자신의 문제와 인격을 인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작업이다.

특히 미술은 언어표현이 익숙하지 못한 아이들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언어보다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더욱

편안한 도구로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미술 자체가 정화기능을 가지고 있어 손상되고 불안정한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미술치료는 자기 자신이 미술활동이라는 치료활동에 스스로 참가해야 하는 능동적인 치료방법이다. 즉, “주사를 맞아 준다고 해서 환자의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과 같이 미술치료는 내면의 작업이기 때문에 대신해 줄 수 없으며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을 해야만 치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술치료는 대부분 두 가지 범주 속에 속하는데, 첫 번째 범주는 미술의 창의성에 이어져 있다는 것으로, 이런 관점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의 치료성을 강조하고 있다.

미술치료의 두 번째 정의는 상징성으로, 정신분석적 미술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점을 표현하고 있고 그 그림에는 각기 특정한 의미의 상징이 있다고 본다.

소위 이러한 접근법을 미술심리치료라

고 하며 진단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결과보다는 창작과정 중시

“미술치료는 내면의 표현이다.” 이 말은 미술치료와 일반 미술이라는 영역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의로서 미술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외부적인 면모만을 본다면 일반 미술활동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술치료와 미술은 그 목표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미술치료에서는 인격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고 결과보다는 창작 과정의 태도를 매우 중요시한다.

이처럼 미술치료는 미술기교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선적으로 미술치료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외부세계에 대한 것보다는 내담자 자신의 내면에 이미지

를 표현하고 발달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까운 사람의 갑작스런 사망, 교통사고 등과 같은 명백한 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시험공부, 은근한 따돌림, 선생님과 부모님의 무지에서 비롯된(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그런 소소한 정신적 외상을 처리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많다.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대처하는데 있어서 미술심리치료와 관련된 정보를 통해 도움을 주고자 한다.

◇최금란 칼럼위원 약력

- 관동대학교, 한중대학교 외래교수
- 경동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지도사 강사
- 한국상담학회 강원지회 이사,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위원
- 청소년지원센터 실행위원, 쉼터, 성폭력상담소 전문위원
- 한국미협 정회원, 속초미술협회 감사
- 미술치료사(KATR), 1급가족상담사
- 1급놀이치료사, 1급군전문상담사
- 교원직무연수 및 1급전문상담교사연수,
- 미술치료특강 다수
- 전 동우대 유아교육학과 겸임교수, 영동대, 한국방송통신대 강사
- 강릉대학교 평생교육원 미술심리지도사 강사
- 현재 교육학박사(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 현재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상담심리) 외래교수